CONTENTS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69
민경진 부이사장, K-water 금강유역본부장

8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3 ——— 5구간 백골산성 낭만길

14 사업보고 - 국회토론회
대청호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국회토론회 성료

18 특별기고 ——————— 고립과 소통의 현장! 섬과 바닷새

24 대청호 직유입 하천과 소유역운동 3
옥천 안내천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한 소유역운동

28 사업보고 - 2020 서화천 수질개선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32 사업보고 - 2020 회인천 수질개선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34 사업보고 - 2020 정책연구위원회, 대청호유역하천센터

36 대청호 뉴스&뉴스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vol.124

발행일 2020. 7. 31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열정은 높았다. 서화천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에서 마을주민들과 하천변에 쓰레기 소각하는 곳들을 청소하고 있다. (관련 내용 28쪽 참고)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함께 협력하며 환경의 소중한 가치 지켜나가겠습니다

민경진 부이사장, K-water 금강유역본부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당연직 부이사장으로서 지난 1월 30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신 K-water 금강유역본부 민경진(55) 본부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7월 9일에 민경진 본부장이 근무하고 있는 K-water 금강유역본부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민경진 부이사장 약력

1989.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02.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2011. University of Bath(영국) (박사)
2010. 8 K-water 연구원 정책경제연구소장
2014. 7 비서실 비서실장
2015. 12 K-water 연구원장
2017. 1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 파견
2018. 1 금강보관리단장
2020. 3 금강유역본부장

물과 함께 한 인생이야기

-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고향은 미호천변이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청주공항 여객청사 쯤이 나의 고향이다. 지명으로는 북일면 입상리이고 친구들은 오창 쪽으로 학교를 많이 다녔다. 입상리는 공항으로 인해 이주단지가 되었다. 입상리는 자연마을 이름으로는 안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옥천에도 안터마을이 있어서 반가웠다. 나의 고향 안터라는 마을명의 유래는 산으로 둘러 싸여 삼태기처럼 되어 있어 양지바르고 살기 좋다보니 지어진 이름이다. 마을에서 1km 정도 가면 미호천이 있어서 미호천에서 멱 감고 물고기 잡고 하였다. 그 때는 모래가 정말 많았다. 그야말로 금빛모래였다. 모래무지 등 물고기도 많아서 천렵도 하고 미역 감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인근에는 참외, 수박 등 원두막도 많아 서리도 했던 추억이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청주에서 다녔고 초등학교 때 잠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대학교도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입사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 당시 아내를 사귀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캠퍼스 커플이었다. 졸업 후 취업으로 인해 멀리 떨어질 수도 있었기에 가급적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적인 갈등도 많았다. 당시에는 은행이 급여가 더 많다보니 대학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금융권으로 많이 취업을 하였다. 처음에는 월급봉투를 받고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웃음)

K-water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기억에 남는 때는 2000년도에 전략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던 때이다. 현장 근무를 하다가 전략기획팀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그 당시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던 때였다. 그 때 K-water에서 민영화에 대응하는 업무를 내가 담당하게 되었다. K-water에서는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민영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다양한 이유, 문제점 등을 수립하여 대응하였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도를 민영화하자는 것에 당시 환경단체들과 행정안전부에서도 반대를 했었다. 지방상수도는 행안부에서 조직을 총괄하고 있었고, 광역상수도는 K-water에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와 함께 연구하고 대응하였다. 그렇게 정책업

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만나는 분들 중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회사의 도움으로 민영화의 본산인 영국의 바스라는 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당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박사과정의 중심이었는데,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와 다양한 사례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

유학 다녀오고 나서는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다. K-water 정책경제연구소장과 K-water 연구원장을 맡았는데, 정책경제연구소장을 할 때 많은 이슈들을 다뤘다. '물과 인권'이라는 단행본 책을 발간하고 다양한 포럼도 하고, 특히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과 함께 물개혁포럼 구성하여 활동을 하였다. 물개혁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한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초창기에 구성할 때 소장을 맡아서 운영하였다."

K-water 및 금강유역본부의 역할

- K-water 금강유역본부의 업무에 대해 여쭤보았다.

"K-water가 하고 있는 임무는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영관리,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 시설의 건설·관리,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지방 상·하수도 수탁 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관리 등이 있다. K-water는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이라는 미션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라는 비전을 가지고 물안심 서비스, 물나눔 서비스, 물융합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유역관리를 위한 물안심 서비스는 홍수, 가뭄 예방 및 대응 강화, 댐과 하천의 물환경의 실질적 개선, 시설 안전성 강황, 하수도 관리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체계 확립 등을 전략과제 및 목표로 하고 있다.

맑은 물을 부족함 없이 나누기 위한 물나눔 서비스는 시설 최적 활용, 대체 수자원 개발 및 활용, 물 수요예측 및 공급관리 강화, 유역단위 공급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 고품질 수돗물 공급으로 먹는물 신뢰도 개선, 취약지역 물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조성 착공식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전략과제 및 목표로 하고 있다.

물-에너지-도시 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한 물융합 서비스는 하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수변공간 창출, 친환경 물순환 도시 조성, 청정 물에너지 개발 활성화,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물산업 혁신, 한반도 물복지 향상 등을 전략과제 및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강유역본부는 예전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할 때는 전북본부였다가 이후 금영섬권역본부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다시 금강유역본부로 개편되었다. 통합적인 유역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였고 금강유역본부가 되었다. K-water 또한 유역물관리를 위한 조직적인 기반을 만든 것이다. 금강유역본부는 수자원, 수도, 환경관리를 맡은 영역에서 하고 있고, 최근의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문제이다. 금강 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요 이슈가 되다보니 자연성 회복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환경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 환경운동에 대해 여쭤보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한국의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한 바 있다. 환경운동의 역사, 배경, 역학관계, 흐름 등을 공부하고 설문과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게 되었다. 환경운동의 뿌리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고 민주화 운동의 한 흐름으로 환경운동이 시작되어, 처음에는 공해라고 명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여 공해추방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울산에서 카드뮴 중독 사례가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산업화와 개발이 큰 흐름이었던 시대 속에서 환경운동은 단체의 명망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낙동강 페놀사건이 일어나면서 환경운동의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 시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적인 환경운동가에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바뀐 것이다. 그 당시 페놀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업체 불매운동을 하는 등 참여하면서 자생적인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단체들이 기존의 환경단체들과 연합을 하면서 환경단체가 본연의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은 영월 동강댐 백지화 운동인데 이 운동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고 환경운동이 제도화되기도 했다. 낙동강 페놀사건이나 영월댐 백지화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환경운동이 이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장이나 경제적인 부나 발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도 당연히 있다. 그것이 확장되어 사람만이 아닌 모든 생명들이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를 더 중시하는 사람과 환경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 맞게 정치세력화가 되기도 한다. 개발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환경을 중시하는 집단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역사는 발전하기도 한다. 변증법의 정반합처럼 말이다. 가령 환경운동이 없었다면 수자원관리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환경을 고려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천천히 왔을 것이다. 특히 동강댐이 백지화되면서 대댐에 대한 개발보다 수원을 다변화하고 소형댐을 개발하는 등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경제, 환경 주장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그것이 서로 부딪히고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운동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대단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헌신이 꽤 크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최근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이 자연의 생물서식지를 파괴를 하여 야생동물들이 도시에 가까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 갈수록 생물종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이런 점을 보면 앞으로 더욱 자연과 환경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청호보전운동에 매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대청호보전운동에 대해 여쭤보았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의 자연성, 물관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큰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버넌스로 꼽히는 만큼 중요하다. 물관리를 하드웨어적으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류에서 물을 내려 보내 주는 사람들, 하류에서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환경을 생각을 하고 오염원을 저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러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들도 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서로 협력하여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다.

바쁜 주민들을 다양한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다.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 분들이 환경개선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서화천 유역과 회인천 유역에서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대청호에 직유입되고 있는 하천 및 각 지역의 주요 하천에서 소유역 거버넌스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가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효과가 금방 눈에 드러나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활동이 필요하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설립된 지 18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모두들 수고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응원하고 기대한다. 저 또한 힘껏 협력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삶을 살아오시면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지만 욕심이리라.

글 여규용 6기 대청호해설사

대청호 해설사가 들려주는 오백리길 이야기

5구간 백골산성 낭만길

『안전한 걷기 길 확보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가 아쉽다』

제법 더위가 느껴지는 날 5구간 걷기에 도전 한다. 5구간 이름은 “백골산성 낭만길” 이라고 한다. 5구간은 대전을 지나는 경부 고속도로 폐구간인 신상동의 신상교에서 부터 시작한다. 걷는 길 중에 여기가 또 백미라 할 수 있는 길이다. 잘 다듬어진 길을 따라 호수를 끼고 걷다 보면 머릿속 복잡한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걷기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5구간 - 넘어진 이정표

오늘 걷는 5구간은 두 번에 나누어 걷기로 한다. 날씨가 무더운 탓이다. 신상교 앞으로 접어든 길이 사뭇 아늑하고 편안하다. 시간이 지난 다음 어느 날 조용히 다시 찾아도 좋을 그런 길을 마냥 즐거운 기분으로 걷는다. 멀리 물빛은 호반의 멋진 풍경을 물속에 가두고 있고 간간히 부는 바람은 그 위를 한여름의 열기를 식히듯 살랑 거린다. 길가로 멋지게 자란 갈대가 시야를 가로 막는다. 가끔 나타나는 물웅덩이가 발걸음을 잡지만 그래도 걷는 길은 사뭇 즐겁다. 길 저 편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은근한 기대감도 마음을 즐겁게 한다.

오른쪽에 작은 흥진 마을도 예쁘게 자리하고 있어 그야말로 호젓한 풍경이 더 없이 아름답다. 지난번까지 걸었던 오백리길은 좋으면서도 아쉬운 점이 곳곳에 있었는데 이번 5구간은 또 어떨지 궁금해진다.

백골산성 낭만길은 신상교에서 부터 방아실 입구까지 약 13km 이고 시간은 6시간 정도 소요된다. 편안한 호수 길을 따라 걷는데 여기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쓰레기 들이 간간히 눈에 뜨인다 특히 가지고 온 음료수를 마시고 빈 캔을 벤치에 그냥 두고 간 심사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요즘 어디를 가든 이런 버려진 쓰레기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환경보호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다. 호수에 잠긴 반영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사진도 찍고 그 풍경을 보며 감상에 젖어 본다. 걷다 보니 어느새 백골 산성 입구에 도착을 했다. 지나는 길에 먼 발치로 보였던 김정선생의 묘와 재실이 눈에 들어 왔지만 다음기회에 들러 묘와 재실을 다시 보기로 한다. 충암 김정선생은 조선 중종 때 형조판서겸 예문관제학을 지내셨다고 한다. 대청호를 끼고 이렇게 이름난 옛 선조들의 흔적이 많이 있다. 언젠가는 하나하나 돌아봐야 겠다는 욕심을 부려보며 백골 산성을 오른다. 사실 얼마 전 우연히 이곳으로 드라이브를 왔다가 참 멋진 벚꽃길이라 생각을 하였던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았다. 이야기를 들으니 이곳 벚꽃길이 대전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한창 벚꽃이 필 때면 여기서 축제 같은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고 한다. 길 양쪽에 늘어선 벚꽃 가로수를 보니 그럴 만도 하겠단 생각을 한다. 근처에 만들어 놓은 넓은 주차장이 찾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생각했다면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은데 아쉬운 점

은 호수 주변의 생태계를 고려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사람을 위하여 늘 자리를 내어주는 자연은 무슨 죄가 있는 것일까?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다. 백골 산성을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왠지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고 걱정이 앞장을 선다. 한때는 국내 안가본 산이 없을 만큼 산행을 즐겼었는데 말이다. 무엇이든 꾸준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숲속엔 바람도 없다. 아마도 대청호에 놀러 라도 간 모양이다.

문득 이곳 이름이 왜 백골 산성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흡족한 답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동행하시는 김재식 해설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일행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다. 날씨는 덥고 땀은 비 오듯 하고 발걸음은 천근만근이고 갈 길은 멀고 이런 남감한 일이 있나 싶을 즈음 눈에 들어온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쉬어 갈까 했지만 자꾸 쉬면 더 힘들어 질 듯하여 그냥 패스한다. 그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백골산성 정상이 힘들었던 오름의 시간을 잊게 해 준다. 인증샷으로 흔적을 남기고 하산길에 접어든다. 여기서 잠시 백골 산성을 소개 한다. 북서쪽으로 보이는 곳에 마산동산성이 있다. 백골 산성은 둘레 약 400m의 퇴뫼식 산성이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산성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다. 예전에는 이곳이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오늘 이 구간은 두 번에 나누어 걷는다. 그 두 번째는 방아실 입구에서 절골 승강장까지 걸어볼 계획이다. 방아실 앞에 차를 세우고 오늘 일정을 협의 한 뒤에 인증샷을 남기고 출발을 한다. 거기서 눈에 뜨이는 이정표 하나가 있다. 고해산(苦海山)이라 표시한 부분에 의견이 분분하다. 원래는 약

5구간 - 고해산 이정표

5구간 - 아스팔트길

해산(若海山)이었는데 한자 표기상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동행한 송미영해설사님의 도움으로 관련 기관에 알아본 결과 두 개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기는 한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의문 나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고 연구해 가는 즐거움 또한 오백리길 걷기의 숨은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걷기는 진행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이 특징이다.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될 즈음 백골산성 이정표가 쓰러져 있다. 나무로 만든 이정표라 지지대가 썩어서 넘어졌을 것이라 추측을 하지만 바로 보수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유지 보수하고 관리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 한다.

한동안 이어지는 아스팔트길을 조심스레 걷는다. 차도와 인도가 없는 시골길이다. 과속으로 지나는 차들이 엄청 위험하게 느껴진다. 커브 길에서는 마주오는 차가 보이지를 않아 더욱 조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 풍경을 마음 놓고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다. 오백리길 걷기의 맛은 느리게 걸으며 주변풍경을 감상하고 곳곳에 흩어진 문화 유적과 역사를 이야기 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멋이 좀체 살아나질 않는다. 어차피 걷기 길이라면 도로 옆

5구간 - 모니터링 선생님과

5구간 - 방축골 가는 길

으로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테크길도 좋고 자갈길도 좋으니 안전하고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호반을 따라 걷는 길이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공부하며 걷기 좋은 곳이기에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방축골 꽃님이네 라는 레스토랑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야트막한 산을 넘는다. 마침 그곳에 모니터링 나와 계신 송석봉 선생님은 만난다. 함께 대청호 환경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반가움에 안부 인사와 사진을 찍고 수고하시라는 인사를 남기고 발길을 재촉 한다. 그렇게 방축골로 접어든다. 그곳에는 대전지역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관리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거기서 잠시 수질관리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물의 중요성과 그래서 지켜야 할 이유와 이곳 수질관리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절골 마을로 접어든다. 안내판 하나가 눈길을 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운동” 입간판이다. 그 옆에 비치된 소화기 보관함을 살펴보니 먼지가 가득하다. 언제 충전해 놓은 건지, 작동은 잘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 막상 위급상황일 때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며 발길을 재촉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고 보기 좋게 하는 것엔 참 익숙하다 그러나 그것을 제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엔 참 인색하다. 누군가 해 주기를 바라고 내

5구간 - 수질관리소

5구간 - 소화기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운동” 입간판

일이 아니라고 방치하기 일 수다. 방축골에 있는 그 유명한 “꽃님이네”는 어쩐 일인지 황량한 폐허로 변했다.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유 재산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조속히 정상화 되어 예전처럼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아래쪽으로는 몇몇 카페와 식당들이 성업 중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오수 들은 잘 처리 되는지 늘 지켜보고 관리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수질관리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어느덧 오늘 걷는 길이 끝을 보인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 나누며 함께 걷는 길은 일상에 지친 삶속에서 큰 역할을 한다.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다. 마음이 젊어야 몸도 젊다고 한다. 그 속에서 함께 하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걷기를 마치고 나누는 점심과 커피 한잔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그 속에서 더 깊어지는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큰 보람이 될 것이고 행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작은 일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의 잘남으로 키 재기를 한다면 그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눈으로 보내주는 따스한 마음이야 말로 우리가 즐겨야 할 덕목이지 싶다. 이렇게 걸으며 자연에게 보내주었던 따스한 눈길과 마음처럼 말이다. 오늘도 함께 걸으며 서로 힘이 되는 이야기로 즐거움을 주었던 해설사님들에게 고마운 마음남기며 이야기를 마친다.

글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대청호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국회토론회 성료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주관하여 「대청호 댐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옥천지역 주민 30여명과 각계 기관 관계자·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석하였고, 현직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해 댐지역의 문제에 큰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수질보전과 댐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립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영순 국회의원 또한 환영사에서 '물관리 일원화시대에서 대청호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아픈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외에 주호영 원내대표,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김재종 옥천군수 등의 축사에서도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친환경적 활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접어들어 열기가 더하는 가운데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댐 상·하류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 발전방향」의 발제에서 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친수와 생태기반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류 및 하류 지역 간 갈등의 근본적 해소가 필요하고 지역의 참여를 통한 유역관리를 통해 환경이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병동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금강물관리처장은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구축방안」의 발제에서 홍수터 훼손·교란 및 불법경작 등의 비점오염 원인 제거를 위한 친환경적 복원이 필요하고 물과 인접한 홍수터와 기존 수변구역에 추진 중인 수변생태벨트 사업이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유역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지막 발제인 「대청호의 가치발굴과 유역공동체의 역할」에서 대청호 상류지역은 환경서비스의 유지와 공급을 담당하고, 하류지역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공공영역은 상하류의 조율과 행정지원을 통해 대청호 유역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다고 논하였다.

이날 패널토론은 권오성 옥천신문 편집국장, 김보현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장, 김이형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민종규 댐지역주민, 박병욱 옥천군 환경과장,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패널들은 앞의 발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대청호 상하류가 공동체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대청호 수질을 개선시키면서도 각종 규제와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은 상류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하류간 상시적인 논의를 통해 댐 주변지역의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와 지속가능한 대청호 유역을 위해 상하류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주민들은 플로어 토론에서 댐주민지원사업, 금강수계특별법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고,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환경부와 관계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도 성토하였다. 실질적인 대청호 상류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절실하고,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금번 토론회를 기회로 댐과 상수원 관리지역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상하류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청호 상하류가 함께 하는 유역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가운데에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발족취지인 '대청호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글 이시완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소장

고립과 소통의 현장! 섬과 바닷새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은 대부분 섬에서 발생한다. 한일 간의 독도, 중일 간의 조어군도(센카쿠열도), 러일 간의 쿠릴열도 등과 같이 동북아시아에 국한해도 주요국 모두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바위섬 하나가 해양 영토와 자원 확보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문명사적으로도 물자수송과 정보 및 인적 교류는 육상의 실크로드에서만 형성된 것은 아니다. 부족과 민족을 넘어 고대국가 시기부터 활발한 해상 무역은 규모의 경제와 부의 축적, 그리고 항해술과 선박술 등의 관련 기술을 발달시켜서 결국 문명의 발전을 촉진시켜왔다.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한국(HK) 사업 중에 '섬의 인문학-문명사적 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사업이 있다. 본 사업은 영토주권적 측면도 있지만, 육지패러다임으로 바라본 섬이 고립과 폐쇄성의 공간이라면, 해양패러다임으로서 섬은 바다를 통한 소통의 공간이라고 한다. 고대부터 섬주민은 육상과 달리 수렵채집사회(hunter-gaterer society)로 유지해 왔다. 현재의 섬주민의 주 수입원은 어업기술의 발전으로 농경사회와 같이 기르고 생산하는 개념이지만, 여전히 바다가 제공하는 식량 자원을 채집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첨단 과학 시대에도 바다는 여전히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섬은 매우 역동적인 공간이다. 물리적으로 파도와 바람에 의해 섬의 형태가 결정되고, 염도에 적응하기 위한 특수한 적응전략, 육지의 포식자를 피하지만 자신들을 먹이로 하는 다양한 해양 포식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집단 시스템의 발달 등 육지와는 또 다

섬의 희생제의(소)를 하는 당숲(외연도, 천연기념물)

제주도의 해안선의 해식애

외연도의 마을과 농경지

금강하구에 위치한 유부도의 도요 물떼새류의 군무

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유인도와 같이 섬주민이 마을을 형성하면서 만든 경관(농경지 등)과 생물과 상호 공생하기 위한 배려(바이오필리아 biophilia)에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립과 소통으로 대표되는 섬과 바닷새는 지구 또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는 약 5천만 마리의 이동성 물새류 및 바닷새에게 중요한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 바닷새인 도요물떼새류는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섭취와 안전한 서식지를 섬과 갯벌에서 제공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서해안은 한반도와 중국의 큰 하천의 영양물질이 흘러나와 많은 해양생물에게 먹이원을 제공하고, 넓은 갯벌을 형성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섬에서 사는 바닷새는 집단번식지를 형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섬과 바닷새의 대표적인 장소로는 '칠산도'가 있다. 전남 영광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40분가량 가면 하얀 눈이 내려앉은듯한 일곱

천연기념물 경고문(칠산도)

칠산도 중의 하나인 육산도의 괭이갈매기 집단번식

개의 섬을 볼 수 있다. 7개의 섬 중에는 조석에 따라 바닷물에 잠겨 있는 바위섬(여)도 포함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수많은 세월동안 파랑에 침식되어 해식애가 발달하였고, 경사면은 비와 태풍에 쉽게 쓸려 내려가 마치 해병대 돌격머리처럼 섬 정상 부위만 일부 식생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칠산도에 사는 대표적 야생조류는 3만여 마리의 괭이갈매기,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가 약 300여 마리 정도가 살

고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육지의 쇠백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 생물을 주로 먹는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인 까나리나, 갯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망둥어나 게류 등은 이들의 주요 먹이가 된다. 노랑부리백로는 키 큰 나무가 없는 섬의 특성상 육지 백로류의 둥지와 달리 낮은 관목류의 마른 가지를 모아 조잡한 둥지를 만들고 산다. 바닥에는 저어새와 괭이갈매기가 유사한 재료로 번식을 한다.

무인도는 인간의 간섭이 덜하거나 광활한 갯벌을 끼고 있어 함께 살아도 종 또는 개체간의 먹이 경쟁은 육지보다 수월하다. 서해안은 육지에서 흘러온 많은 영양물질을 기반으로 촘촘한 먹이그물망이 형성되어 바람과 태풍 등의 모진 풍파에도 이들에게 최적의 번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고립무원인 바다와 섬은 야생조류에게 집단지성의 힘을 일깨우게 한다. 집단번식의 정보 소통은 육지 못지않은 강력한 포식자들의 침입에도 생존율을 높이고, 경계태세로의 전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바닷새는 안락한 육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기상과 척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풍부한 먹이와 정보 소통의 힘으로 멸종위기의 위협에서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섬과 바닷새는 문명발전에 속절없이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동북아시아의 해안은 값싼 석유화학 제품의 홍수 속에서 밀려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미세 플라스틱 포함) 더미에 많은 해양 조류와 포유류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폐사한 바닷새의 위에는 각종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로 뒤덮혀 있고, 몸 안에 축적되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먹이원 변화도 눈에 띈다. 섬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방문은 오랫동안 섬주민과 형성해 온 공생 시스템과 외래종의 침입 장벽을 와해시키고 있다. 짧고 강력한 위협 요인들은 바닷새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기에 바닷새의 서식지와 번식지 등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육산도의 노랑부리백로

오산도 앞의 바위섬(여)에서 휴식하는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무리

칠산도 앞바다에서 잡아 온 풀반지(Thryssa hamiltoni)

경계 및 위협 행동을 하는 괭이갈매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조사자의 행동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옥천 안내천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한 소유역운동

안내천

대청호는 1980년 담수 이후로 지속적으로 녹조 등 수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과 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창립초기에는 대청호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정화활동 등 실천활동을 전개해 왔고, 중기에는 대청호에 근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대청호생활공동체운동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청호유역하천센터와 하천감시단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금강 상류의 하천감시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안내천

최근에는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활동보다 강화된 활동이 요구되어 왔다. 이는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9개의 하천에서 주민참여형 수질관리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대청호에 직유입되고 있는 하천은 옥천군 서화천, 안남천, 안내천, 보은군 회인천, 가산천, 청주시 묘암천, 등동천, 품곡천(주민들은 노현천이라고 부름), 대전시 주원천 등 9개의 하천이다. 이 하천 유역에서 주민 정화활동, 환경교육, 가축분뇨 및 하수 관리 방안 마련, 민관협력을 위한 회의 체계 마련 등 '수질개선을 위한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물론 대청호 직유입 하천이 없는 지역에서는 금강본류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활동하면 될 것이다.

2016년부터 옥천 서화천 유역에서는 이러한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해 왔다. 2018년부터는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퇴비나눔센터도 발족하여 활동해왔다. 서화천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보은 회인천 유역에서도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마을 주민들과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냈다.

앞으로 서화천, 회인천 뿐 아니라 다른 직유입 하천에서도 소유역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서는 옥천 안내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옥천의 안내천 개요

안내천은 지방하천으로 수계는 안내면의 총 12개의 행정리 중 동대리, 서대리, 방하목리, 도이리, 정방리, 현리 등 6개의 행정리가 유역에 속한다.

서대저수지를 수원으로 시작해서 현리를 지나 인포리 부근에서 대청호로 직유입된다. 대청호로 직유입되기 직전에 월외리에서 흘러내려오는 월외천이 안내천과 합류한다. 상류에서는 서대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농수로 등이 유입되고 축사와 농경지, 면 소재지 등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안내천이 대청호로 직유입되기 전 현리에는 안내천 인공습지공원이 2005년에 조성되었다. 하천연장은 11km, 유로연장은 6.72km, 유역면적은 17㎢이다.

안내천의 오염원 조사

2017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에 따르면 안내천 유역의 오염원별 총인(T-P) 배출부하량은 토지계(78.0%), 축산계(14.3%), 생활계(7.8%) 순으로 조사되었고 우심 지역은 동대리로 나타났다 동대리의 경우에는 안내천 유역의 전체 총인 발생부하량 기준으로 12%를, 배출부하량 기준으로 2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은 점오염원(8%)보다는 비점오염원(92%)으로 유출되었고 동대리에서 안내천 전체 비점오염원의 23% 가량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평균 수질은 비강우시 I 등급으로 하류 지점에서 총인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하류의 저류지를 거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우시에는 하천 평균 수질이 II등급이었고 중류 지점을 거치면서 총인 부하량이 높게 증가되었다.

2018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환경기초조사자료 결과 안내천 유역에는 축사 30개소(소 약 464두), 방치 축분 5개 지점 등의 축산계 오염원과 인삼재배지 27개소(면적 56,139㎡), 비닐하우스 7개소(면적 18,214㎡), 홍수조절지 36개소(면적 75,230㎡) 등의 토지계 오염원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안내와 서대), 개인하수처리시설 71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내천 유역 전체 총인(T-P) 배출부하량 중 축산계가 83%, 생활계는 15%, 토지계가 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축산계의 한우와 중류에 밀집된 토지계(인삼재배지, 비닐하우스) 오염원들은 강우시 중류지역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또한 방치축분이 전체 총인(T-P) 부하량의 46%에 기여하였고 우심지역인 중류에 해당하는 정방리의 경우 전체 축분량의 40%를 차지하며, 많은 양의 방치축분들이 현장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안내천 유역의 마을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하면 수질개선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안내천 쓰레기 투기 소각

안내면 주민들간 협력 강화하여 맑은 안내천으로

안내면은 주민들이 활발하게 공동체 활동으로 살기 좋은 안내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안내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한글 교실을 진행해 왔고, 매년 7월에는 안내면 옥수수·감자 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 전체가 협조하고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이 있는 안내면이기 때문에 안내천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고 가꾸는 '안내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활동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치되어 있는 가축분뇨가 안내천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가축분뇨 비닐 덮기 등을 진행하고 또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친환경 퇴비를 공급하는 퇴비나눔센터의 활동을 안내면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천변이나 마을도랑 주변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8년과 2019년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진행한 하천쓰레기 조사 결과 안내천은 2개 지점에서 다량의 쓰레기 투기 및 소각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과 쓰레기 분리수거, 하천정화활동을 하고, 주민환경교육을 진행하면 안내천을 깨끗하게 하고 안내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안내면과 이장단협의회 등과 협의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안내면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맑은 안내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국장

“소중한 우리마을환경, 우리가 지켜요” 소통과 민관협력을 실천하는 서화천유역 사람들의 노력

서화천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위원회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관리로 시행되는 연구용역으로 확정되어 우리단체가 3년동안 시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다.

대청호녹조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다양한 수질오염원을 매주 모니터링하며, 특히 심각한 구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공동조사를 통해 발빠른 오염원조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3차 운영위원회(7.20).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비점오염원 및 생활하수가 대청호로 직접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형 저감시스템을 구축하는 마을지원사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했다.

농업폐기물 적정관리 시범마을(군서면 자모리) 협약식

자모리마을 주민환경교육 및 천연비누 만들기

그러한 과정속에 주민들의 참여와 생활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서화천 일대에서 민관 협치의 바람직한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및 마을주민 대면교육이 어려운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서면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비대면 주민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이 대다수인 경우에는 천연제품을 만들어 교육홍보자료와 함께 전달하면서 간접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실천활동에 참여하는 마을은 군서면 은행리(상은, 하은), 군북면 자모리. 지난 6월부터 각각 2차례의 실천활동 및 주민교육이 수행되면서 주민들은 반갑게 호응해주신다.

“우리마을앞 하천이 대청호로 흘러들어간다네요. 우리 아들딸 손주들이 저 물을 먹는다고 하니 더 깨끗한 물을 보내줘야죠”

군북면 자모리마을 주민환경교육이 진행중일 때 마을어르신들이 해주신 말씀.

“요즘 마을도랑변에 없던 폿말도 있고,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비료봉지나

물병을 태우면 안된다는걸 잘 몰랐다"는 70대 어르신은 "그렇지만 태우지 말라고만 하고, 그 많은 농업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하신다.

뜨거운 땡볕이 길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대청호변 녹조에 대해 많은 오염원이 문제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쓰레기처리방식도 문제고, 그저 소각하면 안된다는 챗봇같은 반복된 행정도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농업폐기물 적정관리 시범마을(군서면 은행리) 실천활동후 기념촬영

하천변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에 홍보현수막을 부착하면서 소각재 원상복구 실천활동을 진행하는 모니터링단들.
오염원 조치전(좌)과 조치후(우) 현장(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지난해 설치한 비가림 재활용분리수거대 활용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군서면 월전리)

소각행위와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현수막이 서화천주변에 휘날린다.

맞는 말씀. 예나 지금이나 비현실적인 정책은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다. 농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서둘러 모색돼야 하는 숙제로 남겨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다.

한편 서화천 유역이 좀더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주민들의 바람처럼 현실적인 교육홍보활동과 생활속 실천력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민들의 동참속에 맑고 깨끗한 소유역 관리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맑은 회인천을 위해 회인면이 뭉쳤지요

회인면 이장단협의회

대청호는 대전, 청주, 보은, 옥천, 금산, 영동, 무주를 아우르는 큰 인공호수입니다. 그 만큼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들이 많은데요. 보은의 회인천은 회인면과 회남면을 지나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회인천을 수질이 좋아져야 대청호 수질도 좋아 지고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대청호를 남길 수 있습니다. 회인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회인천을 공유하는 지역 주민, 지역단체, 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 전문가 그리고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협의를 하여 추진해온 것이 바로 회인천 수질 개선 거버넌스입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인 올해에도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은 거버넌스 운영, 선진지견학, 녹조 방지를 위해 방치축분 조사 및 비가림설치, 가축분뇨 방치 방치현수막 게시와 주민간담회, 주민분들과 함께 하는 정화활동 그리고 회인천 모니터링단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회인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민분들과 지역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모니터링단을 조직하고 발대식 및 기초교육을 지난 6월 12일 오전 회인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모니터링단은 회인천 주변 마을 주민 21명으로 구성되어 대청호로 흘러들어오는 회인천 수질 개선에 앞장서고자 올해 처음으로 조직되었습니다.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기초교육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 김재곤 팀장이 준비과 진행을 맡았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대한 소개와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모니터링단 운영 방향과 활동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건희 사무처장이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모니터링단원들에게 위촉장과 모니터링단 단증을 수여하는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모니터링단은 6월 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되는데요. 6월에 2차례 7월에 2차례 모니터링단 활동을 한 결과 회인천 유역 마을마다의 환경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간단한 쓰레기 처리는 모니터링단이 직접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방치된 축분을 포함함 비점오염원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조사한 비점오염원들 중 방치된 축분, 2019년에 비가림을 설치했으나 해체 되고 부실한 축분은 올해 다시 비가림을 설치했고 더 이상의 축분 방치를 방치하기 위해 이장단협의회 간담회, 주민자치위원간담회를 통해 각 마을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주민들과 밀접하게 함께 하는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앞으로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회인천 주민들과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 정책연구위원회

“대청호 현장에서 현안을 짚다”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현안모니터링 전후 비교분석 연구과제 -

우리단체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배병욱)는 올해 2개의 연구과제와 대청호 현안대응을 위한 현장조사(모니터링)활동 및 정책토론회를 계획한 바 있다.

연구과제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수질·수생태계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대책 검증연구, 국제적 물 이슈에 대한 이해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국제협력기반 마련연구 등 2개의 연구과제를 기획, 현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현안모니터링활동을 연구과제 담당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3년 당시와 7년이 지난 올해까지의 현장상황은 어떠한지 전후 현황을 비교분석하면서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안모니터링이 계속 진행된다.

첫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7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동구 사성동일대 연육교건설예정지부터 옥천군 대정리(방아실) 불법수상레저 영업현장까지 전반적인 현안을 확인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성행하는 개발행위 등에 대한 상생의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 동구 연육교건설의 경우 사성동 대청호변 언덕(산)에서부터 대청호 한가운데 떠있는 붕어섬과 대청호 건너 마산동까지 트레킹다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사성동일대(대청호의 회남로) 주민들이 대청호 건너편 마산동일대(대청호의 추동로)의 주민들이 서로 왕래(차량으로 20여분 소요, 도보로는 40여분가량 소요)하면서 옛문화를 되찾으며 대내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둔다는게 대전 동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에 정책연구위원들은 이구동성 “대전충청권 450만여명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관통하는 교각건설로 인해 오염원 유입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건설사업 배경 및 목적에 대한 명분이 약한데다 대청호 양쪽 마을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이동시간을 비롯하여 대청호오염 및 투자 대비 경제성 평가가 비현실적이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난관을 헤쳐나가면서까지 건설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차라리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대전 동구에 전달, 정책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안모니터링 마무리활동은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불법수상레저현장 점검이었다. 주민감시원의 설명으로 그동안의 수상레저영업활동으로 인한 주민피해사례 및 주민의견을 전해들으면서 주민전체의 의견이 궁금해졌다. 레저스포츠 차원의 개인적 수상레저를 제한하면서 주민들과 상생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책연구위원회는 7월21일 두 번째 모니터링을 준비한다. 8월말경 중간보고회를 통해 수정보완사항을 체크하는 가운데 공동의 활동과 노력이 대청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이있는 논의는 물론 현장을 제대로 알기 위한 현안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국장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활동 실시 중

대청호유역하천센터는 지난 4월부터 곳곳에 적치되어 있는 가축분뇨에 대한 조사 및 홍보물 배포, 홍보현판 설치, 비닐 덮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대청호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맑은 하천과 호소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번 사업은 센터의 하천감시단, 서화천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의 환경리더와 모니터링단, 금강유역환경청의 금강환경지킴이 등 여러 분들이 협력하며 진행하고 있다.

경작지에 쌓여 있는 밭갈이 예정인 가축분뇨에는 비닐을 덮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방치된 가축분뇨, 한 장소에 모아놓고 여러 경작지에 사용하는 가축분뇨 등에 비닐 덮기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축분뇨 적정관리 홍보물과 홍보현판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거나 설치하여 홍보하였다.

앞으로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가축분뇨가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활동할 예정이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윗물이 맑아야…." 대청호 최상류 주민들 대청호 돌봄이 자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대청호를 깨끗하게 하려고 윗물 마을 사람들이 나서기로 했어요."

대청호 주민 하천관리단 강호정씨의 말이다. 강씨는 대청호 최상류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묘암리 이장이다. 대전과 청주 등을 아우르는 대청호는 면적 72.8㎢, 길이 86㎞, 총 저수량 14억9천만㎥에 이르는 금강 수계의 다목적 호수다. 대청호는 대전, 청주 등의 식수원이지만 여름철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

강 이장과 주변 마을 이장, 주민 등 32명은 2일 '대청호 주민 하천관리단'을 꾸렸다. 대청호 최상류 지천인 묘암천·노현천·괴곡천·등동천·구룡리천·산덕리천 등 6개 지류를 끼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다. 강호철 문의권역 소유역협의회 공동대표(마동리 이장)는 "고추·마늘 등 농사가 대부분인 산골 마을 주민들이 관리단을 꾸린 것은 여름철 '녹조라떼'라 불리는 지독한 녹조 등 대청호의 오염이 눈에 띄게 빨라지기 때문이다. 농약·비료·비닐·플라스틱 등 무심코 쓰는 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 관리단은 2명씩 16개 조를 이뤄 대청호로 유입되는 지류 16구간을 관리해 나갈 참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풀꿈환경재단 등 환경단체들이 이들을 돕기로 했다. 박연수 풀꿈환경재단 이사장은 "대청호 등 모든 자연환경 관리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나서야 우리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고, 살릴 수 있다. 오염으로 몸살 앓는 대청호가 주민의 참여와 힘으로 예전의 넉넉하고, 맑은 모습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관리단은 △하천 오염원 감시 △오염원 줄이기 교육·홍보 △하천·생태 조사 △하천 정화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참이다. 16개 관리구간 별로 하천 관리 기록지를 작성한 뒤 환경단체, 자치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조사는 기온, 수온, 물의 상태(탁도, 거품, 냄새 등), 하천 안팎 쓰레기 유입, 하천 주변 축산·생활 하수 유입 상태 등 꼼꼼하게 진행할 참이다. 또 대청호 관리단을 주변 마을로 확대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강호철 문의권역 소유역협의회 공동대표는 "우리부터 나서지만 우리만으로 대청호를 살릴 수 없다. 우리의 활동이 본보기가 돼 대청호를 낀 모든 마을과 주민들이 대청호 돌봄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겨레】 2020. 06. 02 오윤주 기자

보은 대청호 주변마을 '노래기'떼 몸살

보은지역 대청호 주변 마을에 최근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노래기가 들끓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보은군 회남면 조곡1리 주민들에 따르면 한 달 전부터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곳곳에 노래기가 수백 마리씩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

지네처럼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노래기는 몸길이가 2~4㎝로 농작물이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건드리면 몸을 둥글게 말면서 지독한 노린내를 풍긴다.

'벌레계의 스컹크'로 불릴 만큼 심한 악취를 내뿜는 노래기들이 초저녁이나 새벽녘에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가정집이나 축사 주변에 몰려든다.

특히 야산과 인접한 주택에는 해가 뜰 무렵이나 해질 무렵 떼를 지어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노래기를 목격할 수 있다.

조곡리 마을주민들은 "노래기 퇴치농약을 뿌리면 아침에 죽은 노래기가 수천마리씩 발견된다"며 "매일 제거해도 점점 더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입을 모았다.

노래기는 앞마당이나 뒤뜰, 심지어 방안까지 침투한다. 밭두렁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마을 A씨는 "아침에 밭에 나가보면 노래기가 징그러울 정도로 뒤엉켜 쌓여 있다"며 "약을 쳐도 소용이 없다. 요즘은 죽은 노래기 사체를 쓸어내기 바쁘다"고 하소연했다.

노래기는 습한 곳을 좋아하고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낮에는 무더기로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죽은 사체만 곳곳에 나뒹굴었다.

노래기가 들끓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초.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한 날씨가 계속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노래기가 최근 몇 년간은 이같이 군집을 이뤄 나타나지 않았으나 올해 특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마을 배모(69·여)씨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길이 4㎝가량의 노래기 수백 마리가 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소름이 돋을 정도다.

배씨는 4일 아침 쓸어 담은 노래기 사체 두 봉지(사진) 분량을 본보 기자에게 제보했다.

배씨는 "올해부터 극심해졌다. 엄청나게 많다. 약을 쳐도 자꾸 쏟아져 나온다. 쓸어내기 바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방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에 들어갈까 걱정된다.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데 아침 해 뜰 무렵에는 새까맣게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감당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공동구매하는 노래기 퇴치 농약구입비만 해도 농촌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이장님이 고맙게도 사비를 들여 공동방제를 했지만 역부족"이라며 보은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마을 박범선 이장은 사비 50만여 원을 들여 소독약품을 구입, 마을 전체를 소독했다.

박 이장은 "얼마 전부터 노래기들이 방안까지 들어와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다"면서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기승을 부리는 노래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회남면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조, 이를 퇴치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노래기의 출몰은 비단 보은지역만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노래기'를 검색하면 올해 노래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하소연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충북일보】 2020. 07. 05 이종억 기자

대청호 올해 첫 녹조 발생…여름 우기철 심화 전망

대전·충청권 최대 상수원인 대청호에 올해 첫 녹조가 발생했다. 수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여름철 우기기간에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전국의 상수원 호소·하천 29곳에 대한 6월 기준 녹조 발생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대강 16개보 중 대청호를 비롯한 낙동강 중·하류 7개 보에서 녹조가 발생했다. 충주호 등 한강·금강·영산강 보에서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대청호는 5월까지 유해남조류 개체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6월 들어 수온이 6월 첫주 14.2°C에서 7월 첫주 16°C로 상승하면서 유해남조류 개체수가 70세포/㎖에서 460세포/㎖로 증가했다.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과 칠서 지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조류경보 '관심'(유해남조류세포수 2회 연속 1천 세포/mL 이상) 단계가 발령 중이다.

환경부는 현재 녹조 발생이 많지 않지만 여름철 우기기간동안 폭염(33°C 이상)과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 정체수역을 중심으로 남조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가 확산될 우려에 대비해 먹는물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매일】 2020. 07. 07 김미정 기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이중잣대…규칙개정 시급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의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에 '이중 잣대'가 적용돼 지역발전 잠재력 저하, 지방세 수입 감소, 사적 재산권 침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관리규칙 개정의 신호탄은 박덕흠 의원실이 쏘아올린다.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달 대규모 국회토론회를 기점으로 '규제완화 바람몰이'에 시동을 건다. 이종배 의원(미래통합당·충주)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 배정된 이후 '완화 루트'가 열렸다는 시각도 나온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날 대청댐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가 준 숙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제발언은 이 지사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조 장관을 만나 상수원 관리규칙 등 규제개선 건의안을 전달한 점에 '기인(起因)'한다는 게 충북도의 해석이다.

당시 이 지사는 현행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가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도시지역'에 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즉 지방에 비해 오염원의 발생량이 더 많은 도시지역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제10조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와 관련해선 교통 불편 해소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오염과 무관한 수소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 운항 등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리규칙 등을 배경으로 삼은 규제는 무려 34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의 현장방문에는 충북도에서 이경용 정책특보(전 금강유역환경청장),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 등이 배석했다. 환경부의 여러 고위직을 지낸 이 특보는 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대의명분과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지역의 일방적 규칙 해석은 환경부와 정치권 설득에 무리가 있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김 과장은 "대청호와 직결된 청남대 내 자판기 한 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환경부 등 관련 관계자들이 청남대를 찾아 현실을 목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남대 주변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986년 도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은 수상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

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기류 조성은 지역 정치권에서 시작된다. 박덕흠 의원과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청호 댐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화두로 삼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보은, 옥천, 대전 대덕, 대전 동구 등은 규제에 따른 피해지역이다.

박덕흠 의원실의 전상인 보좌관은 "환경보호와 지역의 입장을 한데 묶어 논의하는 자리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서울대 최지용 교수,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맡았고 패널토론에는 유병로 한밭대 교수, 댐주변 지역주민 민종규씨,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충주출신 3선의 이종배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을 맡은 점을 들며 이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는 충북 지역구 출신 환노위원이 없었는데 이종배 의원이 환노위로 간 것은 잘 된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종배 의원은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맡고 있다.

한편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로 급수인구는 2300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이며 급수인구는 약 350만명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올해 초 이시종 지사는 공개발언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비교해 대청호 규제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충청투데이】 2020. 07. 07 이민기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금강유역환경청

두웅습지에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돌아왔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에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인 금개구리 복원에 성공하여 약 3,5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웅습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금개구리는 2009년까지 습지 인근에서 발견되었으나 황소개구리, 가물치 등 상위포식자들이 대규모로 서식함에 따라 두웅습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라진 금개구리를 두웅습지에 복원하기 위해 금개구리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 복원 준비작업을 한 후 인근지역인 당진·태안 등에서 포획한 금개구리를 2018년에 30마리, 2019년에 100마리 두웅습지에 이입하여 먹이공급을 하고, 동시에 습지 내의 황소개구리, 가물치 등 천적을 제거함으로써 외부 위협 없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동안 조사된 금개구리 개체수를 근거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3,55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복원된 금개구리 개체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두웅습지와 습지 인근의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천적 제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복원은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양서류를 복원한 첫 번째 사례이며, 2010년 이후 사라졌던 두웅습지의 상징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금개구리가 두웅습지는 물론 충청권의 다른 습지에서도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중심 물관리 혁신 담은 새로운 비전 선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전국 강 유역을 대표해 참석하는 시민들과 국회 및 정부, 학계 등 각 분야 초청자들과 함께 '월드 톱 케이-워터(World Top K-water)'로 도약할 것을 다짐하는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2월 말 박재현 사장 취임 이후 물관리 혁신을 위해 '국민중심 물관리', '역동적 혁신소통', '글로벌 기술 선도'를 경영방침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포용', '안전', '신뢰', '도전'을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새로운 비전인 '세계 최고 물 종합 플랫폼 기업'은 기후변화 심화, 그린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편 등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부상하는 시대(뉴노멀)에 걸맞은 물관리 혁신을 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짐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우리 강 ▲수돗물을 즐겨 마시는 시민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물관리 ▲디지털로 만드는 이(e)로운 물관리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물순환 도시 ▲경제를 살리는 물산업 혁신 생태계 ▲국민과 소통하는 변화와 혁신 경영을 제시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뉴노멀 시대를 맞아 환경과 생태가치를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포용적 국민 물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정부와 함께 그린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녹색전환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물관리 스탠더드를 주도함으로써 전 세계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와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업무 협약식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선경)와 대전로컬푸드 라온아띠협동조합(이사장 이성숙)은 지난 2일 대전로컬푸드 라온아띠협동조합 매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대전로컬푸드 라온아띠협동조합은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식생활을 위해 지역생산품인 로컬푸드를 지원하고 서구지역자활센터는 로컬푸드 꾸러미배송을 담당하기로 했다.

김선경 센터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들께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위한 먹거리와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활참여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내 기업과 연계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영동군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영동군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2020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최근 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주최로 심천면장, 마곡리 이장,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과 함께 심천면사무소에서 2020년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업무협약식을 간소하게 치렀다.

군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추풍령면 웅북리, 심천면 마곡리를 신청, 최종 선정되어 금강수계기금 사업비 5000만원을 배정받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개최됐지만 참석자들은 맑고 깨끗한 영동만들기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군은 이달부터 도랑정화, 수생식물식재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본격적인 도랑살리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도랑살리기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마을주민들의 활약상과 노력한 바를 현판에 모두 새겨 앞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의지를 다짐하는 현판식도 거행할 계획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 보 처리 방안 조속 결정해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체되고 있는 금강 보 처리 방안 조속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개최하기로 했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금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계속 미뤄지면서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확정 짓기로 한 시기가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들은 수문개방으로 인해 금강의 건강성이 회복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 및 결정하는 위원회가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는 수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고도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며 "위원장과 위원들의 참석 일정이 수 차례 맞지 않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는 소집조차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논쟁의 중심이었던 금강의 수질 회복, 수 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활용 등의 해결 방안은 1년 6개월간 금강이 보여준 자연성 회복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금강 보 처리방안이 '보 철거'로 결정돼야만 금강의 자연성을 앞당겨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쓰레기 저감대책 촉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는 쓰레기 저감과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 처리량은 2019년 1일 331t에서 지난달 303t으로 줄었지만,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량은 61t에서 85t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소각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2018년 26억원에서 2019년 4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5월까지 28억원을 지출했으며 연말까지는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소각업체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소각업체를 밀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 하루 처리용량인 400ｔ을 채우지 않고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을 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해 전체 소각량을 줄이는 등 올바른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사단법인 정심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